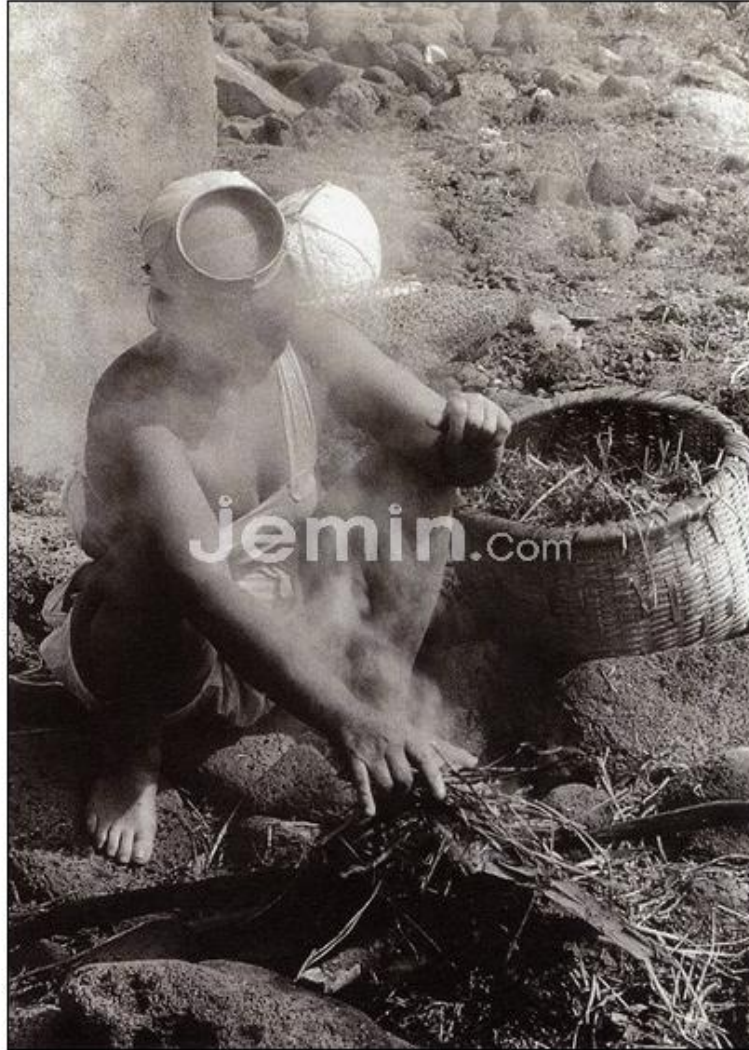


잠녀문화 콘텐츠 확대 나선다

도, 이달 말 용역계약심의회 등 해신당·불턱 가치 평가 진행
'생업 파생 문화 근원' 등 문화재적 의미 부여 기대감 높아

등록 : 2012년 06월 19일 (화) 01:02:21 | 승인 : 2012년 06월 19일 (화) 01:05:52
최종수정 : 2012년 06월 19일 (화) 01:05:3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불턱에서 젖은 몸을 말리고 있는 잠녀 <자료사진>

잠녀문화 문화재 인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 천명 이후 해녀축제 등 외형적 사업 확대에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잠녀문화 인정 및 정체성 확립 작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 우도면 오봉리 불턱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용역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신당과 불턱 등 잠녀와 연관된 공간·행위 등에 대한 가치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제주잠녀·잠녀문화는 독창성과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도내·외적 평가에 반해 문화재 등 인증 작업은 더디게 진행돼 왔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을 받은 것은 1971년 '제주 해녀 노래'가 도지정무형문화재 1호로 등재된 이후 2008년 잠녀 물甬과 물질도구 15점이 제주도민속자료 10호에 지정된 것이 전부다.

지난 2007년부터 잠녀들이 작업 전·후 모이는 장소를 지칭하는 속칭 '불턱'을 비롯해 '잠수굿'과 '해신당'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 2009년 이들 3대 잠녀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 하도리 서동 모진다리 불턱

이후 지난해 9월 도문화재위원회가 추가 용역을 통해 해녀박물관의 해신당·불턱 조사 결과를 보강, 문화재적 가치 평가를 내린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부서간 조율 부족으로 해를 넘기면서 아쉬움만 남겼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녀박물관이 진행한 도내 해신당 10개소·불턱 5개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신당 18개소·불턱 15개소의 현황과 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용역결과에 대한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큰 해신당·불턱을 도지정 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은 물론 해녀길 등 잠녀문화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잠녀문화 정체성 확립은 물론 잠녀·잠녀문화 세계화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작업에도 내실이 기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동복리 해신당

해신당의 무사안녕 기원제(잠수굿)나 불턱공동체 문화는 잠녀 물질이라는 생업에서 파생된 문화로,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협약 등에서는 이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 한동리 하매물 해신당